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7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학 18~2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남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 \* 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 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남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㉔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 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남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남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묘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 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남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남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남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 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 하며,  
 “㉕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남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남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㉖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㉗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남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㉘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남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남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남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날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도문 :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20.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 :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 :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속영남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속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속영 부부를 천상에만 보내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속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속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속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속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속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앞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속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속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속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